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은 읽기 전략이랑 지문이 두 개나 나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요. 특히 글 옆에 달린 수아가 떠올린 생각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번 단원의 핵심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글을 고르고, **읽기 과정인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따라 어떤 전략을 쓰는지 파악**하는 거란다. 특히 수아가 떠올린 생각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돼. 예를 들어 **수아가 모르는 단어의 뜻을 검색하는 장면은 읽는 중 단계의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아하! 그럼 각 전략이 읽기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첫 번째 지문인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에서는 어떤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나요? 원칙이 여러 개 나와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거기서는 미술품 복원 시 지켜야 할 **'색 맞춤'의 세 가지 원칙**을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 물어본단다. **훼손된 부분에만 색을 칠해야 하고, 복원된 부분은 원래 그림과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사라진 부분을 마음대로 그려 넣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렴. **복원된 부분을 나중에 제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본과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해.



복원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일 헷갈렸는데 나중에 제거하기 위해서였군요! 그럼 두 번째 지문인 「세상을 바꾼 사진들」은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글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글은 루이스 하인이 찍은 아동 노동 현장 사진이 미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관련 법 통과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고 있어. 즉 사진이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이 시사하는 바야. 또한 오늘날에도 아동 노동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단다.



사진 한 장이 법까지 바꾸게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각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지 감이 잡혀요. 읽기 단계별 전략이랑 색 맞춤 원칙, 루이스 하인 사진의 사회적 영향력은 꼭 암기할게요!



아주 잘 파악했구나! 지문을 읽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거나, 문맥으로 의미를 추론하는 등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 태도 자체가 이번 단원의 최종 목표라는 것도 잊지 마.



네, 감사합니다!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김은진

우리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의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화제 소개.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일화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좋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다니던 성당의 벽에는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풍화된 벽화의 상태가 할머니가 보기도 너무 좋지 않았나 보다. 그림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만히 두면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았다.**(세실리아 할머니가 벽화에 손을 댄 이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복원되지는 못했다.**(전문적인 보존 처리가 아니었기 때문임. 세실리아 할머니의 복원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 '전문적인 보존 지식 없이 좋은 의지만으로 작업에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좋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원래의 그림은 사라지고 우스꽝스러운 그림만 남게 된 것이다.

'풍화된' 벽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벽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읽기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에 '읽는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매체를 활용해 뜻을 찾는다.'라는 **좋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엉망이 된 그림을 보러 마을에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 여기나 봐.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 풍화된 벽화를 우스꽝스럽게 복원한 세실리아 할머니 그림이 이렇게 되자 할머니는 큰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의 조롱에도 시달려야 했다.**(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응) 그런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성당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잘못 복원된 그림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벽화가 망가졌음에도 망가진 벽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 [(리)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의 주원 처리로 인해 더 유명해졌다.]



▲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벽화로, 세실리아 할머니의 미숙한 복원 처리로 인해 더 유명해졌다.

▶ 잘못된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복원된 이 그림에는 보호 아크릴이 씌워졌고, 이 벽화를 활용한 열쇠고리, 냉장고 자석 등의 기념품까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잘못 복원된 그림이 각광받는 의외의 상황)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복원이 이와 같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잘못 복원된 그림으로 인한 의외의 결과

▶ 처음: 세실리아 할머니의 벽화 복원 실패 사건 소개

이 벽화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보존 과학의 힘이 필요했다. **보존 과학은 미술품의 복원을 연구하는 분야로, 미술 작품의 물질적 성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보존 과학의 의미 및 연구 방법.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보존 과학은 작품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시키는 학문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존가 또는 보존 과학자라 하고, 아픈 그림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미술품 의사'라 부르기도 한다. [미술 작품을 치료할 때 보존가는 먼저 작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작품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 고민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전을 쓰기도 한다.]([]: 보존가가 미술 작품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

세실리아 할머니의 이야기와 보존 과학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는 올바른 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야. 그러니 보존 과학과 보존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야겠어.

▶ 보존 과학과 보존가의 의미 및 보존가가 미술 작품을 치료하는 과정

그렇다면 보존가들은 그림에서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색을 칠해 넣는다는 것이다.(질의응답의 서술 방법으로 독자의 관심 유발) 전문 용어로 '색 맞춤'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칠하는가인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 **그림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완성하는 것**(색 맞춤의 주된 목적)이지 완전하게 처음 상태의 그림으로 복원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좋은 의지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 그림을 복원하는 '색 맞춤'의 의미 및 목적

▶ 중간 1: 보존 과학과 보존가의 역할



▲ 복원된 작자 미상의 19세기 풍경화. 왼쪽은 일반 조명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자외선 촬영을 한 것으로 색 맞춤 처리한 부분이 검게 나타난다.

색 맞춤의 원칙을 한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네.

각각의 원칙에 밑줄을 긋고, 중요 단어를 옆에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되겠어.

색 맞춤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에만 색을 칠하고 남아 있는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색 맞춤의 원칙 ①. 색 맞춤의 세 가지 원칙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복원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화가가 된 것처럼 새로 그림을 그려 넣는 실수**(세실리아 할머니가 잘못 복원한 이유)를 하기도 한다.

둘째, **새로 칠하는 물감은 색이 쉽게 변하거나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원래의 그림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색 맞춤의 원칙 ②) 그러나 [유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크릴 회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할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 색 맞춤을 하지는 않는다.]([]: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을 완전히 구별 가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 사례) **복원 처리가 끝난 후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은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한다.(색 맞춤 원리에 대해 묻는 문제에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 그림과 구별되도록 그려 넣어야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그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복원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이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가느다란 선으로 채워 색 맞춤했다.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이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딱 그 부분만 제거해야 해서 그렇구나.

셋째,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내 마음대로 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색 맞춤의 원칙 ③.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그림의 사라진 부분은 보존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채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그림의 원래 이미지를 조사해야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넣는다.**(사라진 부분을 그려 넣는 방법) 그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사라진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최대한 색과 채도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방법을 쓴다.**(그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방법)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차이를 인식할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의 그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최대한 색과 채도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이유)

▶ 색 맞춤의 원칙 ①, ②, ③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읽기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뒤 이어지는 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보존 처리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의 원래 모습이 변해 버렸을 때이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덧칠했거나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제거되었을 때도 있다. **보존 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작품의 안전과 미관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반드시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의 요건

▶ 중간 2: 색 맞춤의 세 가지 원칙

페데리코 제리는 “잘못된 한 명의 보존가는 비행기 폭격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인용 표현으로 보존가의 중요성을 강조) **제 아무리 훌륭한 미술 작품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미술 작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색되고 파손됨.)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보존가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면, 보존가의 전문 기술은 물론이고 보존 처리를 위해 선택한 재료와 방법이 올바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보존가가 지녀야 할 태도. **미술품 의사가 지녀야 할 태도를 묻는 문제에 ‘자신의 전문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성찰하며 고민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을 보존 처리해야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존재**(작품 보존 처리의 어려움을 짐작케 함.)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미술품 의사’

‘페데리코 제리’는 누구일까? 찾아봐야겠다.

검색해 보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술사학자라고 하네. 그러니 그의 말은 권위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어.

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 ▶ 작품의 보존 처리를 위해 보존가가 지켜야 할 태도와 자세
- ▶ 끝: 잘못된 보존을 막기 위한 보존가의 신중한 선택과 성찰의 필요성



마지막 문단에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봐 걱정스럽네.

보존가의 신중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핵심이야.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야겠어.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읽기 전략이 무엇인지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김은진

‘풍화된’ 벽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벽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읽기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에 ‘읽 ____ : ____ 단어가 나오면 매체를 활용해 뜻을 찾는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엉망이 된 그림을 보러 마을에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 여기나 봐.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우리 모두가 옷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의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독자의 ____ 를 유발하는 화제 소개. ‘ ____ 적이고 ____ 로운 일화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다니던 성당의 벽에는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풍화된 벽화의 상태가 할머니가 보기도 너무 좋지 않았나 보다. 그림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만히 두면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았다.**(세실리아 할머니가 벽화에 손을 댄 이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복원되지는 못했다.**(____ 적인 보존 처리가 아니었기 때문임. **세실리아 할머니의 복원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 ‘ ____ 적인 보존 지식 없이 좋은 의지만으로 작업에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원래의 그림은 사라지고 우스꽝스러운 그림만 남게 된 것이다.

▶ ____ 된 벽화를 우스꽝스럽게 복원한 세실리아 할머니 그림이 이렇게 되자 할머니는 큰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로 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의 조롱에도 시달려야 했다.**(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응) 그런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성당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잘못 복원된 그림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벽화가 망가졌음에도 망가진 벽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의 주요 내용)



▲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벽화로, 세실리아 할머니의 미숙한 복원 처리로 인해 더 유명해졌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복원된 이 그림에는 보호 아크릴이 씌워졌고, 이 벽화를 활용한 열쇠고리, 냉장고 자석 등의 기념품까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잘못 복원된 그림이 각광받는 의외의 상황)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복원이 이와 같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잘못 복원된 그림으로 인한 의외의 결과

▶ 처음: 세실리아 할머니의 벽화 ____ 사건 소개

이 벽화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보존 과학의 힘이 필요했다. **보존 과학은 미술품의 복원을 연구하는**

분야로, 미술 작품의 물질적 성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_____의 _____ 및 연구 방법.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보존 과학은 작품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시키는 학문이다.'라는 _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존가 또는 보존 과학자라 하고, 아픈 그림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미술품 의사'라 부르기도 한다. [미술 작품을 치료할 때 보존가는 먼저 작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작품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 고민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전을 쓰기도 한다.]([]: _____가 미술 작품을 _____하기 위한 과정)

세실리아 할머니의 이야기와 보존 과학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는 올바른 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에시야. 그러나 보존 과학과 보존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야겠어.

▶ _____과 _____의 의미 및 _____가 미술 작품을 _____하는 과정
 그렇다면 보존가들은 그림에서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색을 칠해 넣는다는 것이다.(_____의 서술 방법으로 독자의 _____ 유발) 전문 용어로 '색 맞춤'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칠하는가인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 그림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완성하는 것('색 맞춤'의 주된 _____)이지 완전하게 처음 상태의 그림으로 복원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좋은 의지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 그림을 복원하는 ' _____'의 _____ 및 _____

▶ 중간 1: _____과 _____의 _____



▲ 복원된 작자 미상의 19세기 풍경화. 왼쪽은 일반 조명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자외선 촬영을 한 것으로 색 맞춤 처리한 부분이 검게 나타난다.

색 맞춤의 원칙을 한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네.

각각의 원칙에 밑줄을 긋고, 중요 단어를 옆에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되겠어.

색 맞춤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에만 색을 칠하고 남아 있는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_____의 원칙 ①. 색 맞춤의

세 가지 원칙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복원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화가가 된 것처럼 새로 그림을 그려 넣는 실수(세실리아 할머니가 _____한 이유)를 하기도 한다.

둘째, 새로 칠하는 물감은 색이 쉽게 변하거나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원래의 그림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_____의 원칙 ②) 그러나 [유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크릴

회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할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 색 맞춤을 하지는 않는다.]([]: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을 완전히 _____ 가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 _____) 복원 처리가 끝난 후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은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한다.(색 맞춤 원리에 대해 묻는 문제에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의 그림과 _____ 되도록 그려 넣어야 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그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복원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

야 하기 때문(_____ 된 부분과 _____ 그림이 완전히 _____ 가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이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딱 그 부분만 제거해야 해서 그렇구나.



◀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가느다란 선으로 채워 색 맞춤했다.

셋째,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내 마음대로 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_____의 원칙 ③.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그림의 사라진 부분은 보존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채운다.'라는 _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그림의 원래 이미지를 조사해야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넣는다.(사라진 부분을 그려 넣는 방법) 그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사라진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최대한 색과 채도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방법을 쓴다.(그림에 대한 아무런 _____ 나 _____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방법)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차이를 인식할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의 그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최대한 _____ 과 _____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이유)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위기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에 '스스로 _____을 제거한 뒤 이어지는 글 속에서 _____을 찾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_____의 원칙 ①, ②, ③

우리가 흔히 잘못된 보존 처리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의 원래 모습이 변해 버렸을 때이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덧칠했거나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제거되었을 때도 있다. 보존 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작품의 안전과 미관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_____해야 하는 상황)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반드시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_____에 사용하는 _____의 요건

▶ 중간 2: _____의 세 가지 원칙

페데리코 제리는 “잘못된 한 명의 보존가는 비행기 폭격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_____표현으로 _____의 _____을 강조) 제 아무리 훌륭한 미술 작품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미술 작품은 _____이 흐름에 따라 _____되고 파손됨.)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보존가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면, 보존가의 전문 기술은 물론이고 보존 처리를 위해 선택한 재료와 방법이 올바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_____가 지녀야 할 태도. 미술품 의사가 지녀야 할 태도를 묻는 문제에 '자신의 전문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성찰하며 고민한다.'라는 _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을 보존 처리해야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존재(작품 보존 처리의 _____을 짐작케 함.)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미술품 의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페데리코 제리'는 누구일까? 찾아봐야겠다.

검색해 보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술사학자라고 하네. 그러니 그의 말은 권위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어.

▶ 작품의 보존 처리를 위해 _____가 지녀야 할 _____와 _____

▶ 끝: 잘못된 보존을 막기 위한 보존가의 신중한 ____ 과 ____ 의 필요성



마지막 문단에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봐 걱정스럽네.

보존가의 신중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핵심이야.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야겠어.

(수아가 떠올린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아가 활용한 읽기 전략이 무엇인지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자신에게 맞는 글 선정하는 방법

-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함.
- 어떤 **목적**에서 글을 읽는지 명확히 함.
- 자신의 독해 능력에 맞는 **분량**과 **수준**의 글을 선택함.

→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글을 선택하면 더욱 **집중**하여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읽는 **즐거움**이 커진다.

2.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①: 읽기 전

- | | |
|------|--|
| 읽기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목적을 정한다. • 제목 및 차례, 주요 단어 등을 훑어보고 내용을 예측한다. •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린다. |
|------|--|

3.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②: 읽는 중

- | | |
|------|---|
| 읽기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목적에 맞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 잘 모르는 단어나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본다. •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옆에 메모를 남긴다. •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배경지식이나 문맥을 통해 추론한다. •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 글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 글의 내용이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다. •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

→ ‘읽는 중’ 단계에서는 글을 읽는 **목적**을 떠올려 가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등동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등 읽기 전략을 **조정**하며 읽어야 한다.

4.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③: 읽은 후

읽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내용을 요약한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 글을 읽고 깨닫게 된 점 등을 정리한다.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게 이해한다. • 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찾아 본다. • 글의 내용을 현실 속에서 적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 ‘읽은 후’는 글을 다 읽은 뒤 그 내용을 되짚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5.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의 필요성

<p>점검·조정하며 읽기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읽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p>

6.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해설적, 논리적, 분석적
제재	세실리아 할머니의 벽화 복원 실패 사건과 미술품 보존
주제	미술품 보존은 전문적인 지식 과 올바른 원칙 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벽화 복원 사건을 도입 사례로 제시하여 흥미와 몰입도를 높임. • 보존 과학의 개념, 복원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보존가에게 필요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성의 중요성을 일깨움.

7. 「세상을 바꾼 사진들」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사실적, 교훈적, 사회 고발적
제재	루이스 하인의 아동 노동 사진
주제	사진을 통해 아동 노동 의 실태를 고발해 사회 변화 를 이끈 루이스 하인의 노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한 인물의 노력이 사회를 변화시킨 과정을 보여 줌.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문제의 지속성을 강조함.

TEST 1단계

1. 자신에게 맞는 글 선정하는 방법

-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함.
- 어떤 목□에서 글을 읽는지 명확히 함.
- 자신의 독해 능력에 맞는 분□과 수□의 글을 선택함.

→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글을 선택하면 더욱 집중하여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읽는 즐거움이 커진다.

2.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①: 읽기 전

- | | |
|------|---|
| 읽기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목□을 정한다. • 제□ 및 차□, 주요 단어 등을 훑어보고 내용을 예□한다. • 글과 관련된 배□지□을 떠올린다. |
|------|---|

3.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②: 읽는 중

읽는 중

- 읽기 목□에 맞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 잘 모르는 단어나 정보를 검□해서 찾아본다.
- 중□한 부분에 밑□을 긋거나 옆에 메모를 남긴다.
-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배경지식이나 문□을 통해 추□한다.
- 읽기 전에 예□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 글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하고 그 질□에 대한 답을 찾는다.
- 글의 내용이나 생각에 공□하거나 비□하며 읽는다.
-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읽는 중’ 단계에서는 글을 읽는 목□을 떠올려 가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능□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전후 맥□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등 읽기 전략을 조□하며 읽어야 한다.

4.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③: 읽은 후

읽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내용을 요약한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 글을 읽고 깨닫게 된 점 등을 정리한다.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게 이해한다. • 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찾아 본다. • 글의 내용을 현 속에서 적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 ‘읽은 후’는 글을 다 읽은 뒤 그 내용을 되짚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글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5.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의 필요성

<p>점검·조정하며 읽기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문항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문항을 해결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읽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p>
--

6.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제재 개관

갈래	설문
성격	해적, 논적, 분적
제재	세실리아 할머니의 벽 복 실 사건과 미술품 보존
주제	미술품 보존은 전적인 지구와 올바른 원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벽 복 사건을 도입 사로 제시하여 흥과 몰입도를 높임. • 보존 과학의 개, 복원의 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보존가에게 필요한 올바른 태와 전성의 중성을 일깨움.

7. 「세상을 바꾼 사진들」 제재 개관

갈래	설문
성격	사적, 교적, 사 고적
제재	루이스 하인의 아동 노동 사진
주제	사진을 통해 아 노동의 실태를 고발해 사 변을 이끈 루이스 하인의 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적 배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한 인물의 노력이 사를 변시킨 과을 보여 줌. • 과와 현를 연결하여 문제의 지성을 강조함.

O / X 문제

【1~10】 다음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자신이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글을 읽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O / X)
2. '읽기 전'에는 잘 모르는 단어나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보아야 한다. (O / X)
3.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것은 '읽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O / X)
4. '읽은 후'는 글을 다 읽은 뒤 그 내용을 되짚어 보는 단계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O / X)
5.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에서 수아는 문맥적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추론한 후, 검색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O / X)

1. O 2. X 3. X 4. O 5. O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김은진



'풍화된' 벽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벽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검색해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굳이 엉망이 된 그림을 보러 마을에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 여기나 봐.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우리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의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다니던 성당의 벽에는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풍화된 벽화의 상태가 할머니가 보기에 너무 좋지 않았나 보다. 그림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만히 두면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복원되지는 못했다.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원래의 그림은 사라지고 우스꽝스러운 그림만 남게 된 것이다.

그림이 이렇게 되자 할머니는 큰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로 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전세계 언론의 조롱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

기 시작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성당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잘못 복원된 그림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벽화로, 세실리아 할머니의 미숙한 복원 처리로 인해 더 유명해졌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복원된 이 그림에는 보호 아크릴이 씌워졌고, 이 벽화를 활용한 열쇠고리, 냉장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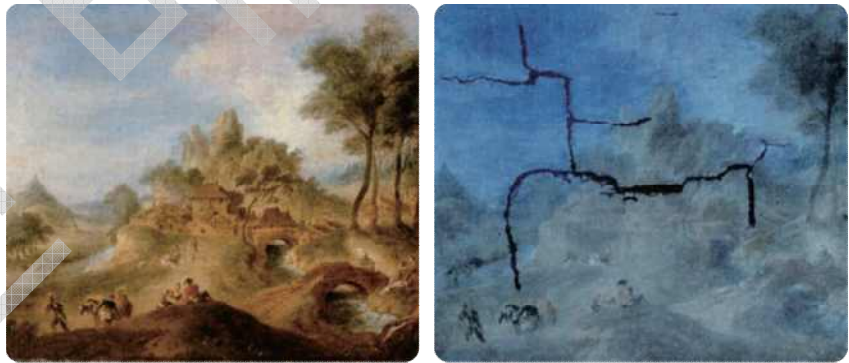
석 등의 기념품까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복원이 이와 같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벽화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보존 과학의 힘이 필요했다. 보존 과학은 미술품의 복원을 연구하는 분야로, 미술 작품의 물질적 성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존가 또는 보존 과학자라 하고, 아픈 그림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미술품 의사’라 부르기도 한다. 미술 작품을 치료할 때 보존가는 먼저 작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작품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 고민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전을 쓰기도 한다.

세실리아 할머니의 이야기와 보존 과학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는 올바른 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야. 그러니 보존 과학과 보존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야겠어.

그렇다면 보존가들은 그림에서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색을 칠해 넣는다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색 맞춤’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칠하는가인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 그림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완성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처음 상태의 그림으로 복원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좋은 의지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 복원된 작자 미상의 19세기 풍경화. 왼쪽은 일반 조명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자외선 촬영을 한 것으로 색 맞춤 처리한 부분이 검게 나타난다.

색 맞춤의 원칙을 한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네.

각각의 원칙에 밑줄을 긋고, 중요 단어를 옆에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되겠어.

색 맞춤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에만 색을 칠하고 남아 있는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복원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화가가 된 것처럼 새로 그림을 그려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둘째, 새로 칠하는 물감은 색이 쉽게 변하거나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원래

의 그림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 그러나 유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크릴 회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할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 색 맞춤을 하지는 않는다. 복원 처리가 끝난 후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은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그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복원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가느 다란 선으로 채워 색 맞춤했다.

셋째,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내 마음대로 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찾아 그림의 원래 이미지를 조사해야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넣는다. 그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사라진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최대한 색과 채도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방법을 쓴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차이를 인식할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의 그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이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딱 그 부분만 제거해야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흔히 잘못된 보존 처리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의 원래 모습이 변해 버렸을 때이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덧칠했거나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제거되었을 때도 있다. 보존 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작품의 안전과 미관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반드시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페데리코 제리는 “잘못된 한 명의 보존가는 비행기 폭격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미술 작품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보존가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면, 보존가의 전문 기술은 물론이고 보존 처리를 위해 선택한 재료와 방법이 올바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도

‘페데리코 제리’는 누구일까? 찾아봐야겠다.

검색해 보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술사학자라고 하네. 그러니 그의 말은 권위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어.

필요하다.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을 보존 처리해야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미술품 의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문단에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봐 걱정스럽네.

보존가의 신중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핵심이야.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야겠어.

핵심 정리